

로마서 강해 3 : 바울 사도의 부르심과 사도직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도직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로마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 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각 단어의 의미를 음미해 보십시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 a called apostle -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사도, apostle 는 *apostello*(ἀποστέλλω) 에서 온 말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set apart : 따로 떼어 놓았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도록 신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도록 직무적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직무적 선택에는 부르신 분의 목적과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치를 사도 바울에게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그 때는 유대교가 세계적 기독교로, 유대의 한 지방의 국수적 민족적 종교가 기독교의 이름 아래 범세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 요청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늘의 시대적 요청과 땅의 시대적 요청이 맞아 떨어진 그러한 때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특수성을 공부해 보십시오.

I. 바울 사도의 부르심

1.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바울 사도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도행전 9 장입니다.

사도행전 9 : 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 :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안가진 것을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네”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안됐구나! 불쌍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가진 것이 아닌,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영광의 주가 보입니다. 고난받는 사도 모습을 보면서 “참 안됐구나 그렇게 고난을 받다니” 하는 생각이 나는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영광의 주가 보입니다. **깊은 신앙의 경지는 고난 가운데 주님과 일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런 참신앙을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참다운 면모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9 : 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 :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 그릇의 의미

그릇은 거기에 무엇이 채워졌는가에 따라 용도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레기로 채워졌으면 버림을 받고, 주인의 것으로 채움을 받으면 쓰임을 받습니다.

요즈음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제 3의 것으로 신앙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잘되는 것, 더 나아지는 것, 더, 더, 더 를 목표로 삼고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제 3의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을 갖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 다음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 :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케 되셨으니, 예수님 덕분에 부자가 되자!

이런 신앙 태도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만연하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이
들어 오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가진 사람, 멋있는 사람, 무거운 사람이 오면 목사부터
시작하여 교인들까지 전부달라 붙어 손을흔들고, 발까지 잡아 흔들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으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삶을 살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해석이 고후 8 장 전체의 사상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바라 본다고 하십시오.

구토가 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많이 더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을 남보다 더
많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채워진 그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8:16-18 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8 : 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 : 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참다운 믿음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8 : 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의 주가 더 가까이 보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모름지기 이 비밀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바다 같은 전도자로서의 길을 쉼새없이 달려간 원동력이 무엇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승리자 바울이라는 주제를 통해 발굴해 내고자 하는 그 보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주 옛날 젊었을 때 화성군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 원장님한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은 여자인데 여자가 그 기도원을 지어 운영합니다. 여자가 산중에 기도원을 짓고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원에는 목회를 하다가 지친 교역자들이 재충전하려고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원장님께 묻는데요.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교역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그 여자 원장님에게 하소연도 하고 그분의 고난으로 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은 그 워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능가하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서 어려움도 어려운 줄 모르고 지냈다는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통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왔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지에 들어 가면 자기가 극복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남보다 2-3 배 효과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가 “그것은 복음 사역자들 한테만 해당하는 말이이예요. 하루 하루를 호구지책으로 일벌레처럼 사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겁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말을 “목사들만 들어라, 선교사들만 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한번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 :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나와 하나가 되라.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 :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²¹ that they all may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also may be one in Us,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있어 하나가 된 것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그릇을 나로서 채워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을 예수님 이외의 어떤 것,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제 3 의 어떤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 신앙 생활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자신을 충만히 채워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자신의 그릇을 주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주님이 보이지 고난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 비결,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들어나게 한 비결입니다.

능력의 삶을 산 비결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 하루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성 어거스틴의 기도를 좋아 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절실한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 3 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으로 너 자신을
채워라! 그리스도 자신을 목표로 신앙 생활을 하라 !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진와 내가 하나가 되었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너 자신을 채워라!

